



여성의 간접흡연

- 자궁경부암 위험 크다

- 미 매시필드 의학연구재단 연구결과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곁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을 경우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매시필드의학연구재단의 한 연구팀은 여성이 간접흡연을 할 경우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을 이끈 마사 슬래터리박사(여)는 “몰몬교도가 많이 살고 있는 유타주에서 이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이 종교가 흡연을 금하고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연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난잡한 성관계가 자궁경부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30세 이하로서 성관계를 맺는 상대가 1명이하인 여성의 경우에는 흡연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슬래터리박사는 “타인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여성의 경

우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며 그것은 여성의 흡연여부, 교육수준, 종교의 유무, 연령, 성상태의 다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연구재단의 피터 레이디씨는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종류로는 최초의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해석돼야하며 성급한 단정은 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행히 이러한 주장의 확실한 검증은 예방의학이나 공중건강의 측면에서 그다지 성급한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간접흡연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위험하다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외에 여러가지 이유로 여성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